

##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롬13:14-16)

만일에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을 믿지 못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 요소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고 좋았던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인간의 전체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본래의 창조 모습이 아닌, 즉 참 자신이 아닌 포장된 나로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선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자신도 남도 속이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선과 의가 나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비로서 서로 복음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롬12:14-16)

- 1)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에 무지합니다
- 2)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8:7)
- 3)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누리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14절)
- 4)말로든 속으로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저주하게 됩니다(14)
- 5)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창3: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할 수 없습니다(15)
- 6)마음이 나뉘어져서 같이 할 수 없으며 가까운 사람과도 하나가 못 됩니다(16)
- 7)마음이 항상 높아지려 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16)
- 8)마음 속에 온갖 죄가 거하는데 감각이 없어 자신을 선한 자로 생각합니다

2.복음이 사실로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롬12:14-16)

- 1)나에게는 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집니다(3:10-12)
- 2)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만큼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17)
- 3)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의 궤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됩니다(14)
- 4)핍박하는 자를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주치 않고 축복하게 됩니다(14)
- 5)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 것 처럼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읍니다(15)
- 6)복음을 깨닫는 만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16)
- 7)겸손하게 되며 모든 좋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옴을 알게 됩니다(16)